

연금저축·보험금·퇴직연금도 5천만원까지 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융사 예보료는 변동 없을 듯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 예금처럼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예금보호한도가 일반 예금이나 보험에 합산해 적용되거나 아예 보호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상품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한도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받게 되는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연금저축신탁 15조9000억원, 연금저축보험 1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은행·보험 상품과 합산해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한도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다중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품”이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환급금과 분리해 별도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도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일반보험(해약환급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 중대 장애 등의 경우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다”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

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보호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험계약 만기도래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은 제외된다. 보험계약 중 법인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및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계약과 변액보험계약의 주계약 사고보험금도 비보호대상이어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도 5000만원의 별도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뉴스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 개최

29~30일 광주DJ센터서 60개사 참여 250명 채용

광주시·전남도·한국전력 등이 공동 개최하는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전남병무청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다.

25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지역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밸리기업, 코트라(KOTRA) 외투기업, 우수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해 총 2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업별 채용상담, 현장 면접, 기관·고용정책 홍보관 운영, 맞춤형 취업 컨설팅 부스가 운영되고 외국

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도 열린다. 광주시 등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지원자와 기업 간 연계, 2차 면접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박람회를 찾은 기업·기관·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주일자리 플랫폼’을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최대별 일자리정책과장은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가 지역 우수기업과 지역인재가 활발히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광양제철 정비자회사 3사 임직원 안전 마인드 강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비자회사 3사(포스코GY솔루션, 포스코GY테크, 포스코GYS테크)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마인드 강화 교육에 나섰다.

안전마인드 강화 교육은 정비자회사 임직원이 안전마인드를 재무장하고 작업표준과 TBM(Tool Box Meeting, 행동을 일치시켜 더욱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진행했다.

특히, 체계적인 정비기술력 축적뿐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달라진 시점에서 기업의 안전수준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정비자회사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은 더욱 뜻깊다.

피해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을 초청해 진행된 교육에서는 안전한 작업장 구현을 위한 안전표준, 관리감독자의 역할, 안전활동의 방향성, TBM활동 가이드 등이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광양=조준의 기자



홈플러스, 체리 살구 인기 홈플러스는 25일 고객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체리, 살구 등 매출 신장률이 여를 제쳤고 일일 수박, 참외를 앞질렀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도 모델이 과일 인기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

호남 최대 ‘광주·전남 유통인쇼’ 개막...중소기업 판로지원

광주DJ센터서 내일 까지...전국 50개 기업 참여



중소기업 제품 유통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할 호남권 최대 유통 박람회가 열렸다. 전남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광주·전남 유통인쇼’가 오는 27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B2B),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가 결합된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로 운영된다.

전국 온라인 판매자, 통신판매업·공동구매 사업자,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주로 전자 상거래에서 활동하는 유통사업자가 참여했다.

전남 중소기업들은 농업용 드론이나 친환경 섬유 같은 벤처 제품뿐 아니라 흙, 매생이, 한과 등 생명의 땅 전남의 농수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우수성을 구매자에게 직접 알리고, 호남권 최대 유통 전문 박람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목표다. /권영민 기자

한전KPS, 62개 사업장 지역사회 공헌활동 나선다

한전KPS 전국 62개 사업장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소통 활성화를 위해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23일 한전KPS에 따르면 ‘1사업소 1대표 사회공헌활동’은 전국 60여개 사업소가 지난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펼치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지자체·복지시설·중소기업과 협업해 추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밀착된 각 사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수혜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전KPS는 올해도 62개 사업소별로 사회공헌활동 계획서를 심사해 사업을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원자력정비기술센터 IT 꿈나무 키우기(아동복지시설 공부방 설치 지원)’, ‘신항양수사업소 ICT기반 노인 장애인 케어 지원’, ‘서인천사업처 에코체인지 강강살라래(내고장 하천살리기) 활동’ 등이다. 사업장별로 6억여원을 투입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의선 회장, 베트남 하노이에 산학협력센터 만든다

현대차, 하노이 국립대와 산학협력 논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베트남 국립대에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베트남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베트남 하노이 국립 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와 협력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교육 사회공헌사업 확대와 현지 생산시설의 전문 인력 확보의 기회로 삼는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레 꾸언(Le Quan)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총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의 필요성과 상호 협력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정 회장과 레꾸언 총장은 베트남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발전에 체계적인 전문 기술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우수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현대차그룹-하노이 국립대 협력센터’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회장은 “하노이 국립대의 자동차산업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한



미래 혁신 인재 육성을 희망한다”며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가 베트남의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트남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 투자·수출 확대방안 논의

강장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광양만권경제청 방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송상락 청장과 강장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간담회에서 송상락 광양경제청장은 “광양경제청은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광양만권이 이러한 국가 전략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장진 단장은 “산업부에서도 경자유역 입주기업 지원체계 강화와 핵심전략산업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광양경제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후 강장진 단장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포장재 수출기업 ㈜승산팩을 방문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수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조준의 기자